

2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43.92	↑ 코스닥	843.94
	(+8.98)		(+10.43)
↓ 금리 (연율)	3.249	↑ 환율 (원/달러)	1302.70
	(-0.009)		(+3.90)

# metro 경제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 3사  
4개월 내 합병”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4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3월 30일 목요일

## “지독한 다운턴 공포에도 성장 자신 AI·챗봇 확대로 DDR5 원년 될 것”

### SK하이닉스 정기 주주총회

유연 대응으로 위기 극복·도약  
추가 감산 가능성엔 선 그어  
DDR5 등 첨단제품 수요 증가  
1분기 바닥 가능성에 힘 실어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제7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향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유연한 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는 29일 이천 본사 수펙스홀에서 제75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SK하이닉스는 이날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고, 김정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정덕균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를 사외이사로, 박성하 SK스퀘어 사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등 이사진 보강을 포함했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SK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에 대한 우려를 피하지 않았다. 적자 우려에 대한 주주 비판에 대해, 1년에 20조원을 넘는 투자와 6개월간 600개 이상 공정을 거친 제품이 '센트' 단위에 팔리고 있다며, '지독한' 메모리 사이클을 막을 방법을 찾아내야하는 경영진의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가격 결정권이 없는 메모리 업체 한계도 고백했다. 엔비디아에 200달러가 안되는 가격으로 HBM메모리를 공급하는데, 이를 탑재한 제품은 1만달러에 팔리고 있다는 것.

감산 노력을 멈춘 D램 업계 전체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시장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표현하며, 3사가 엄청난 공급을 지속하면 가격이 더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가격 상승기에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괴로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치킨게임'이 확대하면 추후 가격 상승폭이 지나치게 클 수 있음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고 박 부회장이 비판론에 빠진 것은 아니었다. 박 부회장은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 설비투자 50% 삭감 계획에 대해서는 양산 일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는 의미라며 기술 개발은 계획대로 지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예컨대 작을 수록 비싼 모바일 용집과 달리, 최근 떠오르는 시장인 서버용집은 미세화 요구가 상대적으로 적은만큼 신규 기술 투자 비용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추가 감산 가능성에도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긍정적인 신호도 내놨다. 광저정 시장은 DDR5를 비롯한 첨단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1분기 '바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박정호 부회장은 AI와 챗봇 등이 확대하면서 올해에는 DDR5 원년이 될 것이라며, HBM과 CXL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 확대도 예상했다. HBM3A와 HBM4 등 차세대 제품도 예고했다.

원가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나노 D램과 176단 낸드 등 선단공정 비중을 각각 20%, 60%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원가를 전년 대비 10% 이상 절감했다고 소개했다. 운용 비용도 10년만에 전년대비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편명	도착지	체크인	탑승구	현황	시간	변경	편명
KC 910	알타리	K11-K16	34	탑승준비	13:45		LJ 213
LH 713	프랑크푸르트	J19-J29	46	출발	13:45		TW 671
UO 619	홍콩	J12-J16	114	탑승마감	13:55		BI 652
CZ 682	선양 (상업)	H01-H18	127	탑승마감	14:05		OZ 114
MU 5042	상하이/ 푸둥	F01-F14	121	탑승준비	14:15		MU 2018
TW 251	타이베이	F19-F38	115	탑승중	14:15		NX 821
Z2 885	마닐라	K19-K22	124	탑승중	14:20		CA 144
ZG 042	도쿄/ 나리타	G10-G18	108	탑승준비	14:20		OM 302
CA 124	베이징	M19-M21	115	탑승중	14:20		OZ 713
RS 713	오사카/ 간사이	D01-D02	10	출발	14:25		RS 723
BX 174	오사카/ 간사이	K29-K30	10	출발	14:35		XJ 701
CA 140	항저우	M19-M21	115	탑승준비	14:40		CA 402
7C 1114	도쿄/ 나리타	L08-L09	10	탑승준비	14:40		OZ 202
7C 1802	오카나와	L08-L09	10	탑승준비	14:45		LJ 203
YP 101	로스앤젤레스	J01-J08	10	출발	14:45		TW 293



29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지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일본·대만 등 22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K-ETA)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한국에서 무비자로 환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1

## 정부, 여행·휴가비 600억 쏟아 내수진작 통해 경제활성화 매진

### 尹 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방한 관광객 1000만명 회복 목표  
비자·항공편 등 여건 개선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안정을 강조하며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 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는 등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윤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민생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며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관광·지역 상권 활성화로 내수·민생을 살리기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지원을 통해 내수부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일반국

민 100만명에게 1인당 숙박비 3만원, 18만명에게 놀이시설 1만원 등 총 134만명에게 필수 여행비 할인을 제공하며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최대 19만명에게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화비와 전통 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p 높인다. 기업의 문화 업추비 인정항목에 유원시설, 수목원 입장권 등을 추가하는 등 국내 관광 활성화 유인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방한관광객 1000만명 회복을 목표로 비자·항공편 등 방한 여건 개선과 K-콘텐츠 개발도 이뤄진다. 22개국 대상으로 K-ETA를 한시 면제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동남아·일본 등 국제항공 노선을 조속히 회복할 계획이다. 크루즈 입항 재개에 맞춰 출입국 등 행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국내 기차·고속버스를 예약할 때 해외 결제 편의성도 높인다.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지역·소상공인까지 확산되도록 상생 지원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동행축제를 계기로 대규모 할인행사를 개최하고,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위챗페이·유니온페이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한 관광접근성을 높인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해외매출 2배 성장 네카오, 올해 더 늘린다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웹툰,美기업과 톱티어 도약  
SM 인수 카카오, K팝 공략 가속화



네이버 사옥 전경 및 카카오 사내 전경.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글로벌 시장서 승부수를 띄운다. 네이버는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매출 비중을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는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해 글로벌 스케일 엔터테인먼트사로 자리매김한 카카오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네이버, 포쉬마크·왓패드 등과 시너지 네이버웹툰은 글로벌 1위 스토리테크 플랫폼이라는 위치를 넘어 ‘전 세계 톱티어(top-tier)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네이버웹툰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창작자가 모이는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실제 마블, DC 코믹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러브콜이 늘고 있다. 네이버웹툰은 올해 파트너십을 잇따라 체결해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 ‘포

쉬마크’과 북미 웹소설 자회사인 왓패드와 손잡고 시너지를 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는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을 펼치고 있다. 포쉬마크 앱에서 제공하는 라이브 비디오와 가상 쇼핑 기능인 ‘포쉬파트너’가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기술을 네이버에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며 “왓패드의 콘텐츠를 접목시켜 빠르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에선 디지털트윈 기술을 구축 중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을 포함하면 해외 매출이 50%에 육박한다”며 “글로벌 성장세는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4면에 계속〉

/채윤정 기자 echo@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국조실, 文정부 임명 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감사 착수  
▲ 한동훈, 내일 국회서 與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설명 /사진 뉴스1

▲ ‘이재명 2기 지도부’ 인선 마무리… 사무총장 유임은 여진  
▲ 민주, 외교과서 왜곡에 “尹 선의가 조롱 당해”



▲ 정의당 “대장동 특검, 내일 법사위 상정… 우리가 이끌어” /사진 뉴스1  
▲ 국회 법사위, 내일 ‘대장동 특검법’ 상정